

어. 아테스토니<sup>a.testoni</sup>는 제법 값나가는 고급구두인데 마치 양말을 신지 않은 듯 발목이 드러나게 신는 스타일을 처음 선보였지.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명품의 멋스러움을 유지하는 모습을 과시하듯이 말이야.

모던라이프에서는 업무 중심이고 업무와 놀이를 섞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어. 반면 포스트모던 라이프에선 ‘일도 놀이처럼’ 즐기는 것을 지향해. 예전에는 일하러 갈 때 비즈니스 슈트를, 놀러갈 때는 캐주얼을 챙겨 입었지만 요즘은 어디 그렇나. 예컨대 아르마니<sup>Armani</sup>는 일할 때 입어도 단정하고, 그 차림 그대로 놀러가도 멋스러운 라인을 창출해 새로운 유행을 선도했지.

패션산업만 포스트모던한 게 아니야. 모던라이프에서는 주말에 교외로 떠나 자연에서 피곤함을 달래곤 했는데, 포스트모던 라이프스타일은 ‘일상에 자연을’ 끌어들여. 도심 호텔의 정원이나 선(禪, zen), 요가, 명상을 즐기는 현상도 이런 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 지프나 SUV는 도심용 자동차가 아니거든. 이것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내심 ‘내가 어디 있는 게 문제인가, 내가 그런 분위기를 즐기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모던라이프에서는 어디엔가 소속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자 나의 아이덴티티였다면, 포스트모던 라이프에서는 언제든 그 속박을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 생활이 선호되는 것 같아. 할리데이비슨은 반항이나 일탈의 상징이라 좋아들 하잖아. 여기서 일탈이란 무책임한 회피가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나의 삶을 뜻해. 《퇴사준비생의 도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퇴사준비생이란 용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준 것 같아.

반복적이며 틀에 얽매인 삶에 짜증이 난다면 모던라이프를 살고 있는 거야. 포스트모던 라이프스타일은 ‘도심생활의 재미’를 한껏 즐기는 삶이거든. 도심에서의 삶은 어찌 보면 스트레스 덩어리인데, 거대한 백화점이나 몰<sup>mall</sup>에서 하는 가벼운 쇼핑은 그 스트레스를 푸는 손쉬운 놀이처럼 여겨지기도 하지.

어때, 일리가 있지? 비정형의 라이프, 남보다 앞서는 라이프 스타일, 나를 표현하는 자유, 일상에 자연을 가져오고, 내가 주도하는 삶, 도심생활의 재미 등의 생각은 합리성을 중시하는 모더니즘 관점에서 보면 다 쓸데없는 낭비라 하겠지. 하지만 이미